



아래 오른쪽: 제일회장단이 2006년 제일회장단 크리스마스 영적 모임 중, 템플스퀘어의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있다.

제일회장단, 영적 모임에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다

연례 제일회장단 크리스마스 영적 모임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려 전 세계로 방영되었다. 이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모든 절기 가운데 성탄절처럼 아름다운 때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의 마음이 궁핍한 자들에게 향합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겨 냅니다. ... 사랑은 좀 더 커지고, 마음도 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고 처진 손을 들어올려주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대기는 마법에 걸린듯 보입니다.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1930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어머니를 여의고 2004년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한 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어둠을 통해 비춰진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

나님의 아들의 숭고한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 즉 세상의 구속주가 이룬 신속죄의 사실입니다.”

힝클리 회장은 전쟁과 분쟁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이 시대에도 구주는 모두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고 간증했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크리스마스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며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의 영은 사랑, 관대함, 그리고 선함의 정신입니다. ... 이러한 성탄절의 정신이 이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한 해 내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몬슨 회장은 성탄절의 영을 간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하게 된다고 하시며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던 말이기도 했지만 성역 동안에 주님이 자주 참아내셨던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집에는 식사하고, 잠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덧붙이셨다.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또한 우리는 “[구주의] 탄생을 기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또한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망 및 부활의 신성함을 숙고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말씀 중에, 파우스트 회장은 구주의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모를 선행은 구주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파우스트 회장은 말씀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남모르게 선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자신들의 마음에 넘쳐 나는 감미로운 영을 느끼게 됩니다. 남모를 선행은 한 차원 높은 형태의 신성함을 더합니다.” ■

사회 정의 및 예술 면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의 이름을 붙인 상을 수상했다.

“이 합창단은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에 감동을 주는 유일한 합창단입니다.”라고 테레사 수녀상을 수여하는 단체인 성 베르나데트 종교 예술 협회의 책임자인 댄 파울로스가 말했다. “세상에는 합창단이 많지만, 어떤 것도 그만큼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2006년 11월 19일, 일요일, 합창단원들은 *Music and the Spoken Word* 주간 방송 후 간단한 축하 행사를 가졌다. 조셉 메이요 수석 사제와 매들린 가톨릭 교구 사제는 합창단을 대표한 맥 크리스티슨 합창단장과 크레이그 제섭 음악감독에게 상을 수여했다.

“저희는 자원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대신하여 영광스럽게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녀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딴 상을 저희가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합창단 총 매니저인 스코트 엘 바릭 형제가 말했다.

이 협회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영적인 업적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시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작은 조각상은 테레사 수녀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상자는 일반 대중이 추천하고 테레사 수녀상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자원 봉사자 합창단원은 여러 다른 배경과 직업과 나이를 가진 350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창단은 많은 녹음 작업과 순회 공연, 주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태버너클 합창단, 테레사 수녀상 수상하다

작 고한 마더 테레사는 “세상은 식량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도 굶주려 있

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06년 11월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은 “특별히 종교와



조셉 메이요 수석 사제(오른쪽)가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의 Music and Spoken Word 일요일 공연 후, 크레이그 제섭(왼쪽)과 맥 크리스티슨에게 마더 테레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전 수상자들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마야 앤질로우,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등이 있다. ■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 DVD로 만들어지다



영화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이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18개 언어로 된 DVD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독점적으로 5년간 상영되었던, 영화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이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 배부 센터에서 DVD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은 두 성약인 성경과 물몬경에서 이야기되어진 것과 같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약과 그 후에 그분이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나신 것을 묘사한 서사적 이야기이다. 가상의 헬람 가족이 구주가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나실 표적과 오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영화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칠십인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 영화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세상의 빛이요 생명”임을 입증하고 구주께서 그 분을 믿는 자들의 삶에 끼치는 놀랄 만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제작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렸고 고대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요했다. 영화는 유타, 캘리포니아, 하와이 주에 있는 57개의 세트 장치에서 촬영 되었으며 이중 가장 큰 세트는 축구 경기장 만한 것이었다. 48개의 주요 배역진과 52명의 주연급 배우들, 1,000명 이상의 엑스트라 연기자들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템플스퀘어의 오케스트라와 태버너클 합창단이 음악

을 제공했다.

65분짜리 이 영화는 이제 교회 배부 센터에서 세계 18개의 언어(한국어, 광둥어, 네델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만다린어, 미국수화,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로 된 다국어 DVD로 구입이 가능하다. ■

박물관, 제8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를 발표하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은 제8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주제를 발표하고 2009년 3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전세계 교회 회원들을 초대한다.



침례, 제이 커크 리처즈의 유화, 가장 최근의 미술 대회에서 공로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조셉 스미스, 조셉 엘 헤이우드의 침례를 위해 얼음을 자르다, 제7회 국제 미술 대회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작, 페트리샤 치우 작

전시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는 모든 곳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경험을

총 망라한다. 작품은 (1)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있는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후기 성도 교리, 믿음, 가르침들 (2) 사건, 장소, 교회 역사 및 그 속의 사람들과 관계 있는 인물들 (3) 교회, 가족, 개인적인 활동을 포함한 후기 성도 삶 속의 종교적 가치의 적용과 관련 있는 주제, 생각, 이야기, 사람들이나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가 18세 이상인 교회 회원들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 한 명당 한 작품씩 출품이 가능하다. 전세계의 문화, 심미적인 전통이나 예술 양식, 다양한 매체, 모두 환영이다. 참가 작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정식 참가 신청서는 2008년 4월 박물관 우편 목록에 있는 작가들에게 우송될 것이다. 신청서는 또한 박물관 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우편 목록에 포함되기를 원하거나 기존의 우편

목록에 있는 정보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이 메일을 보내면 된다. Eighth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Museum of Church History and Art, 45 North West Temple St., Rm. 200, Salt Lake City, UT, 84150-3470, USA 또는 E-mail: churchmuseum@ldschurch.org

첫 번째 심사는 2008년 10월 10일 이전에 우편이나 온라인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작품의 사진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작품은 주제의 성공적 표현, 예술 및 기교의 완성도, 그리고 창조성, 독창성, 예술적 자질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포상에는 교회 소장을 위해 구매되는 다수의 구매상, 심사 위원에 의해 주어지는 25개의 상금이 주어지는 공로상과, 역시 상금이 주어지는 3개의 방문자 선택상이 있다.

웹 사이트 www.lds.org/church-history/museum/competition에서 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전 전시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다. ■

가족 역사 도서관, 세계 각지의 전통을 기리다

린다 헨스, 교회 잡지 기자

스 칸디나비아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고 스코틀랜드어로 된 “올드랭사인”을 부르는 것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있었던 12월의 여러 활동 중 두 가지에 불과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린 무료 저녁 강좌에 참



12월 동안 회원들은 가족 역사 도서관에 모여 다른 문화의 명절 전통을 배웠다.

석한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의 명절 전통을 배웠다.

여러 나라 출신의 원주민들이 대부분의 단기 강좌들을 계획하고 12월의 축제, 음식, 장식, 음악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쳤다. 강좌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으며 가족 활동들도 제공되었다.

가족들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가계도를 만들도록 권고 받았으며, 아이들은 가계도 위에 자신과 부모와 조부모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참가자 전원이 박하사탕을 받았고 4대 가계도를 완성한 가족들은 “Family history is fun”(가족 역사는 재미있어요)라고 적혀있는 펜을 받았다.

가정의 밤과 가족 역사를 위한 아이디

어 목록은 집에 가져가 이용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아이들과 부모가 조부모를 만나 얘기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네델란드,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의 특색이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었으며, 유대인과 개척자의 전통들도 토의되었다.

초보자를 위한 반 책임자인 다이앤 루슬은 도서관이 이 행사를 후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루슬 자매는 평소에 가족 역사 도서관에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데에 활동의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도서관의 목적 중 하나는 도서관에 와서 보다 나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가족 역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앙 가족 역사 도서관은 이런 종류의 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일반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하루 개방 시간 동안 1,9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료 강좌는 다양한 수준의 경험자들과 초보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125명의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0명에 가까운 훈련된 자원 봉사자들 또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도움을 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www.familysearch.org를 방문하도록 한다. ■

2007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추가 제안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2007년 4월호 *리아호나*에 들어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추가 제안이다. 이 제안들과 관련된 공과, 만드는 방법 및, 활동은 이번 호의 친구들 부분의 친4, 친5 쪽에 있는 “그가 살아 계시다!”를 참조한다.

1. 칠판에 ‘잘못됨’이란 단어를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회개할 하면 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회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알아냄으로써 잘못됨이란 단어를 옳음이란 단어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세 가지 사례 연구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회개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65~166쪽, “사례 연구” 참조) 첫 번째 사례 연구 후, 회개와 관련된 노래 혹은 찬송가를 부르고 회개는 복음의 둘째 원리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 사례 연구 후, 회개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세 번째 사례 연구 후, 용서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 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있는 잘못됨이란 단어를 지우고 옳음이란 단어를 적는다. 나의 복음 표준 책자에 나온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실수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안다”라는 부분을 암송한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2.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가 오늘날 교회의 모든 신권 열쇠와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선지자의 사진을 들어 보인다. 하지만 선지자도 다른 분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인도한다고 설명한다. 어

린이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들어 선지자의 사진 위에 놓고 선지자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이 수록된 *리아호나*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선지자가 연차 대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지자의 최근 말씀 중 네 문장을 신중히 고른다. 예를 들어,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더 용서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와 같은 구절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선지자를 더 잘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1~162쪽, “그림 활동” 참조) 선지자가 최근에 말씀하신 네 가지 원리에 부합하는 노래나 찬송가를 고른다. 초동회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특별한 원리에 대한 그림을 그린 어린이에게 교실 앞에 나와 자신의 그림을 들고서 있도록 부탁한다. 신권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3. 노래 발표: “한 천사 조셉에게 와”. (이번 호, 친 13쪽) 이 노래를 가르치기 전에 특정 박자를 지휘하는 연습을 한다. 각 줄의 한 마디 박자를 3/4박자에

서 2/4박자로 바꾼다.

다음의 글이 적힌 낱말 스트립을 순서에 관계 없이 붙여 놓는다. “모로나이”, “쿠모라 산”, “니파이인”, “몰몬경.” 어린이들에게 이 노래는 이들 네 가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낱말 스트립을 노래에 나온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노래를 부른 다음, 어떤 낱말이 제일 먼저 오는지 묻는다. 첫 번째 구절이 “한 천사 조셉에게 와”이므로 정답은 “모로나이”이다. 어린이들에게 그 소절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도록 한다. 한 번에 하나씩 낱말 스트립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세 번 더 노래한다. 조셉 스미스는 금판을 쿠모라 언덕에서 취했고, 그 금판은 니파이인들의 기록이며, 그 소중한 성스러운 책이 몰몬경임이라고 설명한다. 노래가 짧으므로 질문을 할 때마다 노래 전체를 부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은 가사와 재미있는 박자에 익숙해지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서 가족들에게 몰몬경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격려한다. 이 노래에 담긴 이야기가 참되다는 간증을 전한다.

리아호나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다 음 질문에 답함으로써 여러분은 리아호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뜯어서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 설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기타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를 기입하지 마십시오. 2007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나는 _____이다 남성 여성
- 나는 _____이다 기혼 미혼
- 나는 _____에 산다. (빈 칸에 국가명을 적으십시오.)
- 나는 _____이다.
 만 15세 이하 만 16 ~ 18세 만 19 ~ 30세
 만 31 ~ 40세 만 41 ~ 50세 만 50세 이상
-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몇 부의 리아호나를 구독하십니까?
 0부 1부 2부 3부 3부 초과
- 여러분 외에 몇 명이나 여러분의 리아호나를 사용하거나 읽습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 초과
-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의 십대 청소년(만 12~18세)이 살고 있습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4명 초과
- 만일 십대 청소년이 사는 집에서 한 부만 구독하신다면,
 십대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읽은 후 리아호나를 읽는다.
 십대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읽기 전에 리아호나를 읽는다.
 십대 청소년들은 리아호나를 읽지 않는다.
-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의 어린이(만 3 ~ 11세)가 살고 있습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4명 초과
-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린이들은 보통 스스로 어린이란(친구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은 보통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은 친구들을 읽지 않거나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어린이란(친구들)을 책에서 분리시킵니까? 아니오 예
- 여러분은 리아호나를 보통 얼마나 읽습니까?
 보통 성인들을 위한 기사들만 읽는다
 보통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들만 읽는다
 보통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들만 읽는다
 전체 혹은 거의 전체 기사
 읽지 않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

-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리아호나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만일 인터넷을 통해 리아호나에 접속한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 인터넷을 통해 리아호나를 접속할 경우, 여러분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이 설문지의 언어
 영어
 기타
- 다음 설명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거나 반대하십니까? 각 설명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강하게 반대	반대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동의	강하게 동의
--------	----	---------------	----	--------

 - 리아호나의 기사를 이해하기 쉽다
1 2 3 4 5
 - 리아호나의 기사가 너무 길다
1 2 3 4 5
 - 매 리아호나마다 내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다.
1 2 3 4 5
 - 매 리아호나에는 나의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다.
1 2 3 4 5
 - 리아호나의 그림이나 삽화가 기사를 읽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1 2 3 4 5
 - 리아호나의 그림들은 전세계적인 교회를 나타내 준다.
1 2 3 4 5
- 다음에 설명된 리아호나 기사의 유형 중, 여러분이 읽는 빈도수를 가장 잘 설명한 항목의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전혀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	가끔 읽는다	항상 읽는다
-----------	-----------	--------	--------

 - 제일회장단 메시지
1 2 3 4
 - 현 총관리 역원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쓴 그 밖의 기사
1 2 3 4
 - 복음 고전 (과거 총관리 역원들이 쓴 말씀)
1 2 3 4
 - 방문 교육 메시지
1 2 3 4
 - 외설물이나 도박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
1 2 3 4
 -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사
1 2 3 4

전혀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 가끔 읽는다 항상 읽는다

- g. 가족과 결혼에 관한 기사
1 2 3 4
 - h.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1 2 3 4
 - i. 주일 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
1 2 3 4
 - j. 후기 성도의 소리 또는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 경험
1 2 3 4
 - k. 사진이나 삽화가 많은 이야기
1 2 3 4
 - l. 청소년에 관한 기사
1 2 3 4
 - m. 포스터
1 2 3 4
 - n. 질의응답
1 2 3 4
 - o. 알고 있습니까?
1 2 3 4
 - p. 애독자 편지
1 2 3 4
 - q. 어린이란 (친구들)
1 2 3 4
 - r. 교회 소식
1 2 3 4
 - s. 지역 교회 소식
1 2 3 4
18. 리아호나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기사 종류 세 개를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표지에 언급된 기사들
 - 목차
 - 제일회장단 메시지
 - 현 총관리 역원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쓴 다른 기사
 - 복음 고전 (과거 총관리 역원들이 쓴 말씀)q
 - 방문 교육 메시지
 - 외설물, 도박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
 -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사
 - 가족과 결혼에 관한 기사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주일 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

- 후기 성도의 소리 또는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 경험
- 사진이나 삽화가 많은 이야기
- 청소년에 관한 기사
- 포스터
- 질의응답
- 알고 있습니까?
- 애독자 편지
- 어린이란 (친구들)
- 교회 소식
- 지역 교회 소식
- 기타

19~23번까지의 질문에서 각 설명에 해당하는 답의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항상 가끔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 19.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은 말씀이나 공과를 준비하는데 리아호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1 2 3 4
- 20.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가정의 밤에 리아호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1 2 3 4
- 21.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목차에 나와 있는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을 사용합니까?
1 2 3 4
- 22.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제일회장단 메시지의 끝에 나와 있는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1 2 3 4
- 23.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포스터, 게임, 만들기 활동과 같은 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뜯어서 사용합니까?
1 2 3 4
- 24. 리아호나를 보통 언제 받습니까?
 해당 월이 오기 전에
 해당 월의 첫째 주
 해당 월의 둘째 주
 해당 월의 둘째 주 이후
- 25. 얼마나 자주 비회원인 친구나 가족과 리아호나를 나눕니까?
 자주
 가끔
 전혀 나누지 않는다

“나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하도록 주님 방법 보여 주셨네”

찬송가 189장 “가족은 영원해” 중

이태재 형제 가족 이야기,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나는 젊어서부터 진리에 대한 갈증이 컸다. 절대적인 진리, 궁극의 진리를 늘 찾아 다녔다. 하지만 여러 종교를 서성이고 밤새 책을 읽고, 여기저기 묻고 다녀도 찾을 수 없었다. 진리에 목말라 하긴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함께 누워 종종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몹시 더웠던 여름 날 두 명의 장로가 땀을 흘리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니, 진짜 시작은 선교사와 영어 회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정말로 시작이었던 건 옆집에 살던 윤석주 형제 가족이 ‘몰몬’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영어보다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상한 영어 회화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진리가 다 들어 있었다. 선교사들이 주고 간 ‘몰몬경’ 속에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펼치기만 하면 진리가 쏟아져 나왔다. 젊은 날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진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우리 부부는 침례를 결심했다. 처음 선교사와 만났던 날 이후로 3주 만이었다.

침례를 받은 후의 매일매일은 진리를 알아가고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2005년 5월 5일, 우리 가족은 인봉을 받기 전이지만 무작정

성전으로 향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대장정이었지만 주님의 집을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피곤한 줄도 몰랐다. 나는 처음 찾은 성전에서 주님께 길고도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때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막내 혜준이의 피부 질환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것이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가슴은 찢어졌

다. 나는 막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기적과 같은 일은 다시 대구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났다.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한 아주머니가 치료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혜준이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나는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흘렸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사랑스러운 아내 최혜경 자매와 믿음직한 큰딸 원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혜연이와 혜지, 복음 안에서 태어난 막내 딸 혜준이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후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가족이 함께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2005년 11월 12일,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다. 드디어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가족 기도와 경전 읽기에 힘쓰고 있다. 나와 내내는 자녀들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감독단으로서 청년 회장단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누군가는 물을 지도 모른다. 당신이 찾았다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하며 알기 쉬운 것이었다고.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경전을 펼치면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이었다고 나는 말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이태재 형제 가족의 간증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빛을 향해 전진하는 청소년들

오늘날 청소년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불안과 절망 앞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일찍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말한 이 시대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변함없이 빛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방향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 청남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론 신권 의무 프로그램’(이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을 수행하고, 청녀들도 ‘청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며 희망을 배워가고 있다.

러분을 지탱해줄 것입니다.”

청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각 청녀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장려하며, 신성한 성령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각 청녀가 현재 자신의 가정에 기여하고 또 충실한 여성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미래의 책임에 대해 준비할 방법을 제공해 준다. 청녀들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며 일곱 가지 가치관 각각에 대해 여섯 가지씩의 가치관 경험을 완수하게 된다. 모든 것을 완수하고 감독과 접견을 하면 청녀 표창을 받는다. 청녀 표창은 증서와 메달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과 청녀 표창을 받았다. 그들의 진솔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강누리(현 17세 고1) 전주 스테이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 기록부를 완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중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아론 신권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준다. 청

남들은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를 위한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도서의 각각에 설명된 요건들을 완수할 때마다 증서 하나씩을 받는다. 청남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증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게 된다. 이상은 증서와 메달로 이루어져 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에 대해 청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이 요구하는 달성 요건들을 성취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간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간증은 생애를 통해 여



맨 오른쪽이 강누리 자매, 바로 그 옆이 강슬 자매. 청녀들과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고 있다.

이 되고,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워야하는 시기가 오자, 교회의 형제자매님들께서 개인 발전 기록부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으로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와 친구들과 함께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다 보니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슬플 때 하나님에게 항상 의지하게 되었고, 교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기록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족이 함께 유학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한국에서 모두 완수하고 가자고 다짐하고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고, 소중한 친구도 생겼고 저의 안 좋았던 성격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를 완수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청년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청년 회장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뜻있고 보람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전 세계의 청년들이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실행하고 완수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만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강슬 (현 18세, 고2) 전주 스테이크

개인 발전 기록부는 제 삶의 리아호나와 같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통해서 제가 청년으로서, 교회의 한 자매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발전 기록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 회장님의 도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나하나의 경험을 꾸준히 완수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유혹에 흔들려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는 동안 가족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자매로서 갖춰야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와 주일 학교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면, 개인 발전 기록부를 통해서 제 자신의 성품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제 간증과 신앙을 높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치관 임무에 따라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힘이 들긴 했지만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 다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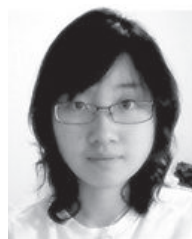
람을 기쁘게 하고 수고를 덜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제게 가장 값진 축복은 개인 발전 기록부에 속한 가치관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또한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게 교회 안에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완수하기까지 저를 지켜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전 자매 (대구 스테이크)



처음 개인 발전 기록부를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청년 메달을 받고 싶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개 두개 해 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결심은 잊혀 졌습니다. 그렇게 게을리 하다가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시작할 때 청년 메달을 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요일에 하는 상호 향상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끝나고 보니 상호 향상 모임이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청년 메달은 그냥 목걸이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가 끝났다고 해서 저의 발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정소영 (부산 스테이크)



저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모님을 위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해 보기도 하고, 가족에게 조금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한 달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경험들을 돌아보면 제가 과연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가 아니었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청소년 때에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복잡한 시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상고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기대하지 못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예슬 (청주 스테이크)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는 청년이 된 날 받았지만 그 책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랐고 몇 해 지나 책의 내용과 크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새로운 청년 회장단 자매님들이 개인 발전 기록에 대해 매우 강조하셨기에, 당시 고3이 될 준비를 하던 저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시간도 부족하던 생각에 자매님들의 권고가 더욱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집에 놓고 오기도 했고 기록하겠다는 말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청년회 시간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는 예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노트가 아니라 직접 레이스를 붙여서 묶을 수 있도록 만든 노트였습니다. “자매님, 이게 무슨 노트예요?” “이거 네 일지야.” “일지요?” “응, 너 개인 발전 기록부 노트 따로 없잖아. 앞으로 여기에 기록하도록 하자.” 기존에 있는 노트보다 큰 크기로 바뀌어서 겹부터 났지만 마지막

1년 남은 제 청년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는 가치 없었던 것이 막상 의미를 부여하고 제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소중해졌고, 잘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3이 되고 첫 안식일에 저는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과 안식일의 모든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철저히 하고 예외 없다고 소문난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주말 자습을 빠지는 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가지고 예상외로 아주 쉽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할 때 어

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난 후 저는 회장단 자매님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5년 동안 밀린 것들을 새로 기록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새로 활동하고 채워나가며 여성으로서의 훌륭한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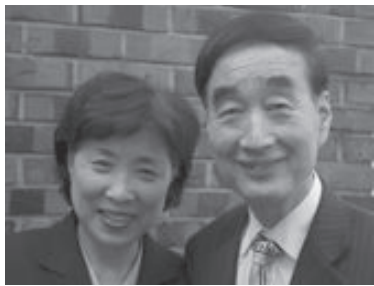
모든 기록을 다 마치고 나서 노트를 훑어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이 노트가 저에게 청년 시절 동안 있었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제 소망을 잊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특별했고 기뻐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청년 시절을 마치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개인 일지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계기로 삼아 더욱 훌륭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철없는 저에게 멋진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신 지금까지의 청년회 회장단과 엄마, 아빠, 그리고 감독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요나 형제(대구 스테이크)



제가 개인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아론 신권 달성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조금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소심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고, 또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던 것이 바로 달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달성 프로그램의 완수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보다도 저에게 있어서 달성 프로그램은 교회에서의 삶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프로그램은 상을 주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성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발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신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이 교회의 모범을 보고 자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복음이 완전함을 간증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며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필수과목이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모세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합니다. 저는 달성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길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고 간증드립니다. ■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 회장 서희철 형제



2007년 1월부터 한국 선교사 훈련원(KMTCC)의 새로운 회장으로 서희철 형제가 봉사하고 있다. 서희철 회장은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소속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내인 정경순 자매와 결혼 후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교회 교육 기구 대표 서리, 스테이크 회장 및 보좌, 고등 평의원, 성전 의식 봉사자, 그리고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부름을 시작할지 2개월째를 보내고 있는 서희철 회장을 만나고 왔다. 매사에 열정적이라는 주변의 말처럼 서 회장은 벌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뻐합니다.” MTC 회장으로 부름 받은 소감을 묻자 서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그러고는 곧 진지한 자세로 말을 이어갔다.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꽃이자 영웅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서 회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란 말에 힘을 주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MTC 교사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모토를 “열심히 찾고 영으로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자.”로 정했습니다. MTC의 가장 기본은 선교사 훈련이니 만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숙달하고 임지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할 생각입니다. 또한 MTC 자원을 활용해서 워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귀환 선교사를 재훈련 시키는 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MTC는 가장 영적인 곳이어야 되고 또한 가장 활동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서희철 회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짧고도 간결한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복음 교리와 원리의 핵심인 주님의 대속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을 돕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 복지부의 메시지

지역 복지부는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교회 지침서, 제2권, 249쪽, ‘영적인 복지’(우리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와 ‘현세적인 복지’(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자립하는 것)에 나와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난을 활용하여 우리는 영감에 찬 메시지와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과 자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지의 원리는 “성전 의식을 포함한 구원을 위한 의식을 받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하는”(교회 지침서, 제2권, 249쪽) 것입니다.

신앙에 충실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와 영생을 얻도록 도와 주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존중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금판에서 몰몬경을 번역할 때, 구원의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하여 기도하여 주께 물어 보려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침례 요한이 “빛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성전 의식이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현재 지상에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3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의식을 받고 의식에 순종하는 것의 영원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교리와 성약 130:21)입니다. ■



지역 소식 기자 소개

2007년 3월 3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감동적인 소식들을 전하는 지역 소식 기자들을 소개한다.

질문1: 지역 소식 기자로 부름 받고 난 후의 소감. 질문2: 지역 소식 기자로서 앞으로 포부. 질문3: 부름에 대한 간증

곽채림 기자 <서울 스테이크>

1. 열심히 스테이크 소식들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 기자로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기자가 됐으면 합니다.
3. 취재를 위해 모든 모임을 참석하다보니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자 부름을 통해서 교회에 더 충실한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 <마산 스테이크>

1. 부족하지만 항상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2.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부지런하겠습니다.
3. 이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주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사랑합니다.

김정민 형제 <부산 서 지방부>

1. 부름 중에 기자라는 부름은 부담이 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누구나 지역 소식을 궁금해 하며, 리아호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3.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임을 볼 때 더욱 더 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기자 <제주 지방부>

1. 즐겁게 스스로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2.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잘 하였습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네요.
3. 리아호나에 자신의 이야기나 글이 실린 것을 보면서 삶의 활력소라도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저도 행복해집니다.

나선경 기자 <안양 스테이크>

1. 우리 스테이크 사람들의 삶의 요모조모를 같이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었고, 특별한 부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하나님이 우리 후기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3. 리아호나는 제 삶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리아호나 기자의 부름을 통해 회원들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아호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대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민병숙 기자 <청주 스테이크>

1. 뿌듯함과 기쁨 보다는 부담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을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음이 내심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2.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회원들의 마

음 속 이야기와 그들이 나누고픈 것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3. 특별히 내가 지역 소식 기자 부름을 통하여 조금 더 겸손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나나 기자 <전주 스테이크>

1. 솔직히 부담이 되지만 훈련 모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지역의 여러 소식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3. 제가 이러한 부름을 통해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숙희 기자 <서울 북 스테이크>

1. 이 부름을 맡게 되면 제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모임을 준비하는 분들의 노고와 사랑을 최대한 더 많이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많은 회원들이 그 기사를 접한 후, 간증과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우리는 부름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큰 간증을 쌓게 된다는 걸 알고, 부름에 큰 감사를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주 기자 <부산 스테이크>

1. 특별한 부름을 사랑하고, 더욱 부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2. 한 줄의 짧은 글, 한 장의 작은 사진만으로도 읽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3. 리아호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방법으로 마련해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서울 동 스테이크>

1.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부름을 받을 당시 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부름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스테이크 회장의 격려에 힘을 얻어 기쁘게 부름을 수행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 항상 부지런하게 마감 시간에 늦지 않게 기사를 꼭 써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3. 내가 쓴 기사를 보고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한 자매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 이후에 지역 소식 기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책임과 축복을 가진 중요한 부름이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진희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1. 3월호에 제가 쓴 기사와 사진이 실렸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 영동 스테이크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활동하겠습니다.
3. 저를 통해 저희 영동 스테이크의 좋은 소식들이 리아호나에 계속되어 실리기 바랍니다.

이효선 자매 <대전 스테이크>

1. 매달 읽어 보기만 했던 리아호나를 이제는 제가 쓴 글로 지역의 소식을 담을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큰 책임을 느낍니다.
2. 지역의 밝은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의 언어로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3. 훌륭한 말씀을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운 회원들을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춘영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1. 기자 부름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름입니다.
2.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저에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특별히 기자 부름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 더 발전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경희 기자 <대구 스테이크>

1. 자주 기사를 올리면 지역회원들이 더 뿌듯해하고 행복해 하겠구나하는 사명감이 듭니다.
2.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보는 리아호나의 한 부분에 나의 기사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과 함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3.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100% 그 부름에 대한 자질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름은 우리가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조연화 기자 <순천 지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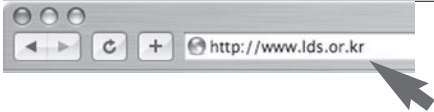
1. 부름을 받기 전에는 리아호나의 지역 소식들이 어떻게 올라오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지방부 공보 쪽의 부름을 받게 되면서 이 낮은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허둥대던 중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여를 병원에서 보내고 퇴원해보니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부름이 하나 있었고, 수행할 여력이 있는 부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아호나 기자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낸 회원의 간증이 리아호나에 실렸습니다. 그 리아호나를 받아든 순간 참 기쁘고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2.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가족 모두가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충실히 이 부름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3.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기자 <인천 스테이크>

1. 부담이 되었지만 나의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글 쓰는 방법을 배워서 글 솜씨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 개종을 하여 교회의 활동 회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리아호나라고 말할 정도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최진 기자 <광주 스테이크>

1. 우리 스테이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2. 앞으로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성신의 동반으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3. 다른 많은 부름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지만, 이 기자라는 부름은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림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2007년 2월 10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우림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2003년부터 후기 성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올해 1학기로 벌써 9회째를 맞았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인 장학금들은 19명의 대학생과 1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초등학교 캠프 2007년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문명규 회장의 감리로 초등학교 캠프가 열렸다.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신입 독신 환영회 3월 1일 통영 와드에서 마산

스테이크 신입 독신 환영 모임을 가졌다.

부산 스테이크 <이민주 기자>

스테이크 대회 전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이순철 회장의 감리 하에 열렸다.

부산 서 지방부 <김정민 기자>

지방부 대회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2007년 2월 3일과 4일 양일간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의 감리 하에 지방부 대회를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스테이크 대회 전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2월 10(토요 총회)과 11일(일요 총회) 양일간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정준영 기자>

스테이크 대회 2006년 2월 24일과 25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의 감리 하에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강서 스테이크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전임 회장인 길정권 형제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그리고 회장단으로 16년 동안 봉사 했었다. 강서 스테이크의 새로운 회장으로는 이광준 형제, 제1보좌로 이인호 형제, 제2보좌로 이상래 형

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LDS 백송 음악회 2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제2회 LDS 백송 음악회가 일산 와드 예배당에서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합동 체육 대회 추웠던 겨울이 다가고 봄기운이 물씬 느껴졌던 2007년 2월 24일, 전주에서는 전주, 광주, 대전 스테이크가 모여 합동 체육대회를 가졌다.

등반 대회 3월 1일,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는 3월의 첫 날. 전주 스테이크는 이철오 회장의 감리 하에 고산 휴양림에 있는 '동상 대아리 식물원'에서 등반 대회를 가졌다.

종교 교육원 졸업식 <형상일 기자>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 3월 3일, 학창 시절의 졸업과는 다른 졸업식이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서울 서와 동, 그리고 중부 종교 교육원에서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지부 회장: 정병일(전임: 손정규)

서울 강서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이광준(전임: 길정권)

제1보좌: 이인호(전임: 이호상)

제2보좌: 이상래(전임: 이인호)

홍성 지방부

지방부 회장: 최성돈(전임: 정석환)

제1보좌: 강지훈(전임: 김용갑)

제2보좌: 윤종순(전임: 최성돈)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김종서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
뉴욕 남 선교부